

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1960년 3월에 本格的으로 學會 創立을 推進하시면서 나에게 그 일을 맡으라고 하셨다.

學會 發足を 위한 準備作業으로서 先生님께서서는 元老級에서는 當時 文理大 數學科의 崔允植先生님, 高大 生物學科의 李德鳳先生님 등과 接觸하셨다. 그리고 金泰鳳, 李鍾珍, 權寧大, 朴益洙先生님 등이 積極적으로 呼應하셨고 가장 젊은 層에서는 나를 비롯하여 趙馨遠, 崔正奉 등이 움직였다.

드디어 學會 結成의 準備가 完了되어 1960년 7월 16일에 韓國科學史學會가 創立되기에 이르렀다. 創立總會에서 先生님은 初代會長으로 選出되시어 科學史學會를 이끌어 가게 되었고 나는 初代幹事로서 先生님을 補佐하게 되었다. 當時 會員은 約 70名 程度로 記憶이 된다.

科學史가 우리나라에서 별로 認識되지 못하던 時節에 先生님께서서는 여러가지 隘路를 무릎쓰고 先見之明을 가지시고 學會를 創立하였는데 오늘날 韓國科學史學會는 數百名の 會員을 가진 大學會로 發展하였다.

先生님은 會長 辭任後에는 名譽 會長으로서 繼續 學會의 諮問에 應하셨고 끝까지 韓國科學史學會의 發展을 지켜보셨다.

이제 地下에 계신 先生님께서서는 그렇게도 所望하시어 發足시킨 韓國科學史學會의 無窮한 發展과 더불어 永遠히 빛나실 것이다.

내가 모신 김두중회장

송 상 용
한림대 사학과

무더운 7월 오후. 집에서 석간을 뒤적이다가 1단기사에 눈이 머문 순간 나는 아찔해짐을 느꼈다. 이럴 수가? 一山선생이 그렇게 빨리 가실 줄은 정말 몰랐다. 편찮으셨다는 얘기도 들은 일이 없는데—— 두달전 전국역사학대회에 만나오셨기에 어디 가신 줄만 알았던 게 불찰이었다. 2월에 귀국하자마자 가 뵈지 못한 것이 후회될 뿐이었다.

내가 一山 김두중선생을 처음 뵈은 것은 4·19 나던 해 서울대 의대에서 있던 한국과학사학회 창립총회에서였다. 그때 나는 다시 학생이 됐으니까 환갑을 넘긴 회장과 어울릴 처지는 아니었다.

2년 뒤 나는 간사에 추가 임명되었지만 학회는 이미 긴 동면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1969년 내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초대간사 임채원교수는 이제 학회는 과학사 하는 사람이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서류를 넘겨 주셨다. 이렇게 해서 나는 김두중회장을 모시고 학회 재건이라는 어려운 일에 착수하게 되었다.

학회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70년대에 나는 힘든 줄 모르고 정신없이 뛰었다. 一山선생은 일을 전적으로 내맡기고 간섭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일하기는 한껏 편했다. 그러나 나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회장께 보고하고 의논드리기를 잊지 않았다. 一山선생은 늘 격려해 주시고 최대한의 도움을 아끼지 않으셔서 큰 힘이 되었다.

1975년 미국에 머무시던 一山선생이 회장직 사의를 전해 오셨고 학회는 이를 받아들여 명예회장으로 모셨다. 그 뒤에도 선생은 발표회는 물론이고 임원회 등 각종 모임에 빠지시는 일이 없었다.

성미가 급하셔서 예정시간을 넘기면 더러 역정을 내시기도 했지만 어디서나 맨앞에 앉아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다. 젊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열성이었다.

一山선생의 책은 성균관대 옆의 낡은 양옥이었다. 2층 조그만 온돌방에 기거하셨는데 때없이 찾아가면 집필을 멈추시고 반갑게 맞곤 하셨다. 구수한 경상도 말로 縱橫無盡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일어서면 반드시 따라 내려와 대문을 열어 주셨다. 송구스러우면서도 선생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어 흐뭇했다.

내가 一山선생께 개인적으로 해 드린 것은 「東西醫學史大綱」의 교정을 본 것밖에 없다. 「韓國醫學史」의 축약판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 어찌다 보니 9 순기념논문집도 만들어 바치지 못했다. 그런데 선생은 나를 꼭 아껴 주셨다. 언제나 학회를 이끌어 가는 기둥이라고 추켜 주셔서 거북할 정도였다. 명동 고급식당에 데리고 가 양식을 사 주시기도 하고 유럽여행 다녀오셨을 때는 란든 포그 점퍼를 사 오셔서 몸 둘 바를 몰랐다.

一山선생의 건강은 유명해서 가끔 매스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米壽를 2년 남긴 분이 TV 연속강의를 해서 「東洋醫學의 世界」를 내셨다. 언젠가는 친구 一石(李熙昇선생)의 허리가 굽어 안됐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다. 19세기에 오신 선생은 21세기까지 사실 줄 알았다. 암이 번져 임원하신 다음에도 끝내 투약을 거절하시고 아픔을 견디셨다니 눈물겹다.

一山선생의 장례는 원장을 지내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치러졌다. 그날은 종일 비가 내렸다. 용인공원묘지에서 하관할 때 사모님이 오열하시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다. 앞으로 一山선생의 모습을 볼 수 없는 학회 모임은 얼마나 쓸쓸할까.